"흥천사 동종 귀환, 현 불자들의 사명"

문명대 명예교수, 7월 2일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떠돌아다니면서 훼손되고 종교적 기능을 못한 흥천사 동종은 이제 원래 봉안 장소인 흥천사로 돌아가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 불제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발표 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를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7월 2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정릉 흥천사 전법회관 2층 무량수전에서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귀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흥천사의 역사와 흥천사 대종의 귀환'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흥천사의 계승 관계와 흥천사 동종 귀환의 당위성을 짚을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는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원당(願堂)으로 정릉 황화방 일대에 창건된 왕실사찰로 현재의 흥천사가 그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조명했다.

신덕왕후 능침사찰로 조성
1504 · 1510년 화마로 전소
1669년 왕후릉 복위 되면서
현 위치로 흥천사가 중창돼
능침사찰로서 본 뿌리 계승
"박물관 유물로 전락해서야"

황화방 흥천사는 1504년과 1510년 두 번에 걸쳐 모든 전각과 사리전까지 화재로 전소됐고, 1512년 토지까지 사대부들에게 분양해 완전 폐사됐다. 하지만, 1409년 신덕왕후릉이 후궁릉으로 강등되며 성북구 사을한으로 이전했고, 능침사 역시 기존 흥천사에서 분사(分司)해 신흥사라는 사찰로 건립됐다. "1510년까지 약 100년 동안 흥천사와 신흥사가 공존하는 시기"라는 게 문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흥천사 동종.

이후 1669년 송시열 등의 건의에 따라 신덕왕후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흥천사도 현재 자리로 새로 중창 이전한다. 이후 19세기에는 적조암, 극락보전, 명부전 등이 중창되며 불사를 이어갔다.

문 명예교수는 "대원군이 1865년 새 흥천사인 신흥사가 원 흥천사를 완전히 계승했다는 뜻으로 흥천사명을 복원시킨 것은 흥천사가 원래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계승했음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흥천사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계승한 현재의 흥천사로 '흥천사 동종'이 귀환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게 문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동종은 신덕왕후와 왕실 조상의 명복을 빌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자 세조가 조성해 헌납한 종"이라며 "특히 흥천사 동종은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이자 왕실원찰의 기능을 담당했던 종이므로 이를 계승한 흥천사로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명예교수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흥천사 동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보존처리를 완료한 흥천사 동종을 왕실 유물 전시관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각을 설치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 명예교수는 "모든 문화재는 원래 장소에 있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박물관에서 유물로만 존재한다면 원래의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흥천사 대종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와 '흥천사의 역사와 그 계승(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창균 동국대 교수, 주수완 우석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문무왕 前 동명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민왕부터 백성까지 조성한 약사불 '국보' 됐다

장곡사 약사불상 · 복장물 일괄… 문화재청, 지정 공고

1117명 시주 · 발원자로 참여
고려 불교 · 사회사 확인 성보

고려 공민왕부터 백성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성에 참여했던 약사여래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려시대 조성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조의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의 한문편지, 천문도 '신 · 구법천문도', 안중근 유묵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고려 후기 유일 금동약사불상으로 당시 조각 경향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돼 왔다. 특히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적혀있어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 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도 불교미술사 · 사회사적 의미가 큰 사료다. 가로 10m가 조금 넘는 긴 발원문에는 약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단일 복장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다.

특히, 발원문을 지은 승려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자 '직지'로 잘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을 편찬한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과 동일인물로 추정돼, 그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사진 위)과 조성발원문.(사진 아래)

장곡사 불상 제작에는 왕전(훗날 공민왕) 등 왕족을 비롯해 군부인(郡夫人), 무관(武官), 일반 백성 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아마도 몽골침탈기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 중에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인 바얀테무르(伯顔帖木兒)를 비롯한 몽고식 이름이 확인돼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미술사 뿐 아니라 불교사 ·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하기에 예술 · 역사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 생활서 불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교불련, 7월 8~10일 은해사서 교수불자대회

'불교사상 실천' 주제로 진행
實事求是적 학술 논문 '눈길'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불교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실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송일호, 이하 교불련)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천 은해사 일원에서 '2022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현대생활 속에 불교사상과 그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술 논문 30여 편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김성규 영남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불교사상의 생활과 실천에 대한 사성제 고찰' △김은희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의 '참선과 요가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 및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의 '뇌과학으로 보는 싯다르타의 마음동작에 대한 고찰'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와 안신정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승가 및 종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인식' △김재인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의 '인생 단계별 불교와 한의학의 융합과 실생활 적용'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와 이명호 경희대 교수의 '재가불자의 신행과 사찰의 현재와 미래' 등이다.

대회는 총 6개 분과를 나눠 진행되며,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의 입재법어와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의 법문도 예정돼 있다.

송일호 교불련 회장은 "탈종교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불교도 위기 상황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교 생태계 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며 "이제 교불련이 앞장서 흩어진 발제를 한곳에 모아 불교 중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금강경한문 + 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